

이번 주 시장을 읽는 하나의 문장

이번 주 시장은 반도체와 AI 인프라 이슈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평일 데일리 리포트 5개를 바탕으로 보면, 가장 크게 반복된 흐름은 「엔비디아 Q1 어닝 서프라이즈, Q2 가이드스 91B」입니다. 주간 리포트는 세부 기사 전체를 다시 나열하지 않고, 날짜별 메인 이슈와 반복된 핫토픽, 다음 주에 이어서 볼 신호만 압축합니다.

Weekly Essay

이번 주의 뉴스는 숫자보다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평일 데일리 리포트 5개를 바탕으로 보면, 가장 크게 반복된 흐름은 「엔비디아 Q1 어닝 서프라이즈, Q2 가이드스 91B」입니다. 주간 리포트는 세부 기사 전체를 다시 나열하지 않고, 날짜별 메인 이슈와 반복된 핫토픽, 다음 주에 이어서 볼 신호만 압축합니다.

이번 주 리포트는 데일리 리포트에 있었던 이슈를 다시 나열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날 반복된 주제를 골라,

왜 시장이 그 뉴스에 반응했는지, 투자자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다음 주에는 어떤 신호를 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주도 산업, 금리와 유가 같은 매크로 변수,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서로 연결되며 가격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리포트는 단순 뉴스 목록이 아니라, 다음 주 투자 판단에 바로 연결되는 해설지에 가깝게 읽히도록 구성했습니다.

01 엔비디아 Q1 어닝 서프라이즈, Q2 가이드스 91B

02 엔비디아 어닝콜, 1조달러 매출 전망

03 BofA, 엔비디아 매수 목표가 320달러 유지

04 JPM, 삼성전자 목표가 48만원 대폭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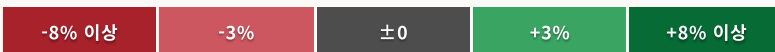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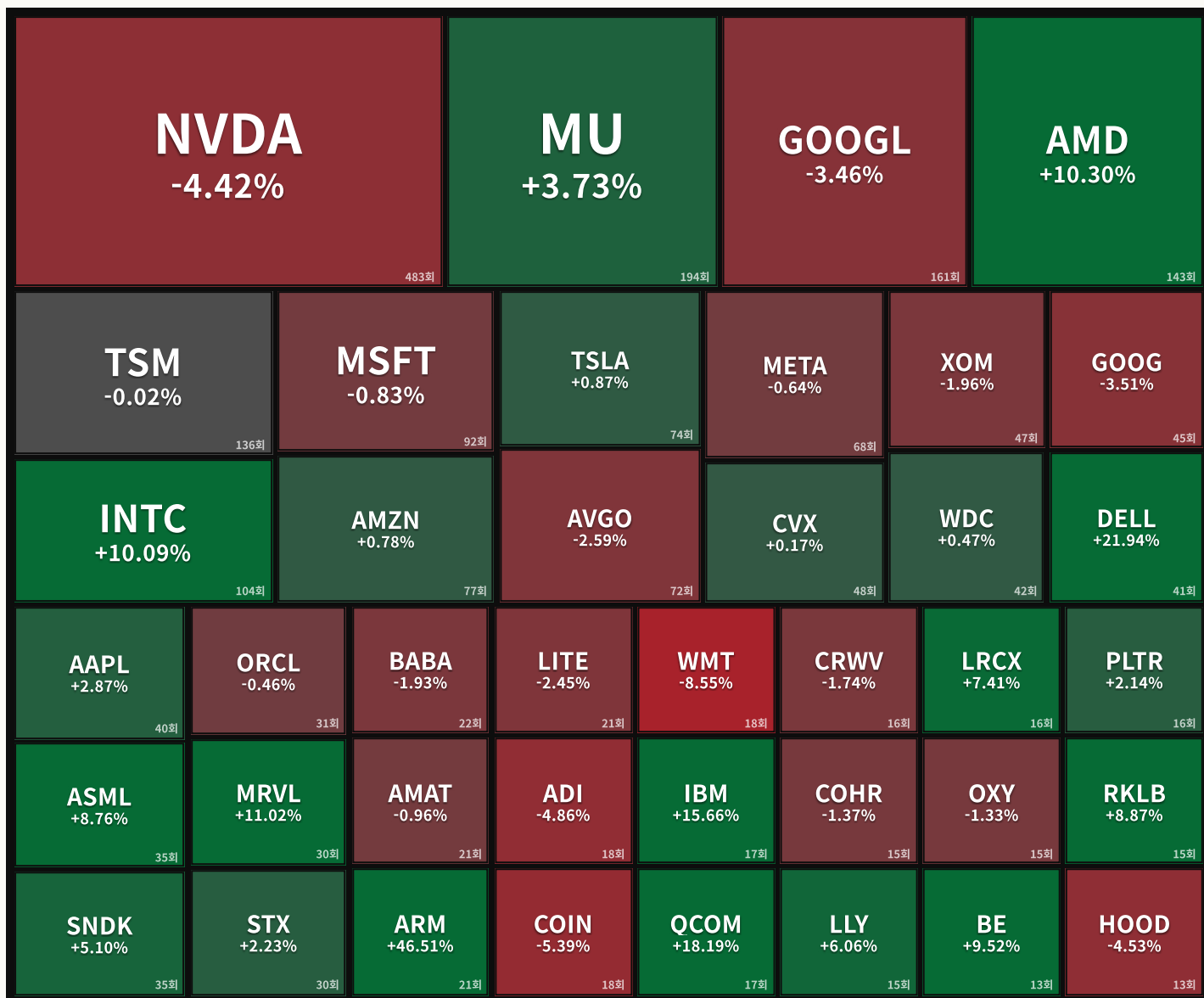
05 JP모건, SK하이닉스 목표가 300만원 상향

Mention Map

이번 주 가장 많이 언급된 기업 40

한 주 동안 뉴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상위 40개 기업입니다. 위쪽일수록 언급 빈도가 높고, 칸 크기는 언급 빈도(제곱근 스케일), 색상은 주간 주가 흐름을 보여줍니다.

487 주간 언급 기업	40 이 페이지 표시	301 주간 상승	142 주간 하락
------------------------	-----------------------	---------------------	---------------------



읽는 법

색이 진할수록 주간 변동률이 큰 종목입니다. 초록은 주간 상승, 빨강은 주간 하락, 회색은 변동이 작거나 가격 데이터가 부족한 기업입니다.

Mover Map

주간 상승률·하락률 상위 20+20

상단은 주간 상승률 상위 20개, 하단은 주간 하락률 상위 20개 기업입니다. 칸 크기는 변동률 절대값에 비례합니다.

487 주간 언급 기업	40 이 페이지 표시	301 주간 상승	142 주간 하락
------------------------	-----------------------	---------------------	---------------------

▲ 상승률 상위 20

HIVE +50.74%	RGTI +48.04%	ARM +46.51%	QBTS +44.25%		
TE +42.67%	ARQQ +31.09%	VSH +26.92%	RDW +24.48%	WYFI +24.44%	
PSNL +33.18%	VOYG +30.04%	CRDO +26.82%	AEVA +23.38%	IONQ +22.43%	
ALAB +32.04%	BB +27.83%	ASTS +26.56%	DELL +21.94%	CLSK +21.61%	HPO +21.25%

▼ 하락률 상위 20

GOSS -37.36%	FUTU -33.38%	JUNS -32.06%	TIGR -29.27%		
INTU -18.53%	ONDS -14.68%	VRT -11.71%	IMMX -11.31%	MRAM -10.46%	
CAN -16.06%	LI -14.05%	RDDT -10.34%	MSTR -9.82%	BILI -9.55%	
NIO -14.82%	BULL -12.45%	BEKE -9.85%	BILL -9.79%	SATS -9.47%	IBRX -9.40%

-8% 이상	-3%	±0	+3%	+8% 이상
--------	-----	----	-----	--------

읽는 법

색이 진할수록 주간 변동률이 큰 종목입니다. 초록은 주간 상승, 빨강은 주간 하락, 회색은 변동이 작거나 가격 데이터가 부족한 기업입니다.

Daily Three

JP모건, SK하이닉스 목표가 300만원 상향

미 30년물 국채금리가 5.1%를 돌파하는 베어 스티프닝이 진행되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뉴욕증시가 일제 하락했다. 한편 JP모건은 SK하이닉스 목표가를 300만원으로 상향하며 LTA 체결에 기반한 메모리 섹터 구조적 재평가 가능성을 제시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보잉 200대 수주와 농산물 170억달러 구매 약속 등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어 항공·무역주에 부분

01

반도체 · 메모리 재평가 · 긍정

JP모건, SK하이닉스 목표가 300만원 상향



SK하이닉스 HBM3E 제품 이미지 · SK hynix

HBM과 장기공급계약 기대는 메모리 업황을 단순 사이클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으로 다시 보게 만든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44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다음 주 볼 점 실제 고객 승인, 수출, 가격 협상력이 뉴스의 기대를 따라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02

금융 · 할인율의 압박 · 경계

국채금리 급등에 반도체 주도 뉴욕증시 일제 하락

금리 뉴스는 성장주의 실적 기대를 직접 훼손하지 않아도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격을 흔든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금융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5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경계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음 주 볼 점 다음 주에는 장기금리가 안정되는지, 성장주 반등이 금리 하락 없이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03

하드웨어 · AI 인프라 수요 · 긍정

폭스콘, AI서버·랙 호조에 목표가 315TWD 상향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하드웨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3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음 주 볼 점 좋은 뉴스 뒤에도 가격이 버티는지, 후속 공급망 증폭으로 온기가 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Weekly Connection

이날의 3대 뉴스는 반도체, 금융,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겉으로는 「JP모건, SK하이닉스 목표가 300만원 상향 / 국채금리 급등에 반도체 주도 뉴욕증시 일제 하락 / 폭스콘, AI서버·랙 호조에 목표가 315TWD 상향」 처럼 서로 다른 뉴스였지만, 주간 관점에서는 모두 실적 기대와 자본 지출, 금리 부담이 어떤 순서로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묻는 재료였다. 기대가 우세했지만, 가격이 이미 앞서 움직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날이었다.

Investor Note

따라서 이 날짜의 뉴스를 읽을 때는 제목의 강도보다 다음 날에도 같은 산업군이 이어서 움직였는지, 관련 종목의 반응이 대형주에만 머물렀는지 아니면 공급망과 주변 업종으로 확산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주간 리포트에서는 이 흐름을 뒤 페이지의 칼럼에서 다시 묶어 투자 판단의 맥락으로 정리했다.

Daily Three

JPM, 삼성전자 목표가 48만원 대폭 상향

JP모건이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48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며 LTA 기반 구조적 성장 전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공격 취소 결정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2분기 글로벌 서버 출하량이 사상 최초 500만 대를 기록하고 AI 스타트업 ARR이 791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AI 인프

04

JPM, 삼성전자 목표가 48만원 대폭 상향

HBM과 장기공급계약 기대는 메모리 업황을 단순 사이클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으로 다시 보게 만든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93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05

트럼프, 이란 군사공격 전격 취소

에너지 리스크는 기업 이익률과 물가 기대를 동시에 건드린다. 그래서 단일 업종 뉴스처럼 보여도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를 바꿀 수 있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에너지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20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중립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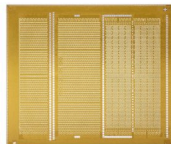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06

호르무즈 재개방 기대·연준 신임의장 취임

금리 뉴스는 성장주의 실적 기대를 직접 훼손하지 않아도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격을 흔든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금융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0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중립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삼성전자 HBM4 제품 이미지 · Samsung Semiconductor

Weekly Connection

이날의 3대 뉴스는 반도체, 에너지, 금융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겉으로는 「JPM, 삼성전자 목표가 48만원 대폭 상향 / 트럼프, 이란 군사공격 전격 취소 / 호르무즈 재개방 기대·연준 신임의장 취임」 처럼 서로 다른 뉴스였지만, 주간 관점에서는 모두 실적 기대와 자본 지출, 금리 부담이 어떤 순서로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묻는 재료였다. 호재와 확인 과제가 섞였고, 시장은 명확한 결론보다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쪽에 가까웠다.

Investor Note

따라서 이 날짜의 뉴스를 읽을 때는 제목의 강도보다 다음 날에도 같은 산업군이 이어져 움직였는지, 관련 종목의 반응이 대형주에만 머물렀는지 아니면 공급망과 주변 업종으로 확산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주간 리포트에서는 이 흐름을 뒤 페이지의 칼럼에서 다시 묶어 투자 판단의 맥락으로 정리했다.

Daily Three

BofA, 엔비디아 매수 목표가 320달러 유지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하고 유가가 급등하는 이중 압박 속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엔비디아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가 320달러를 유지하며 PEG 0.4배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강조했다. 구글과 블랙스톤은 50억 달러 규모의 TPU 기반 AI 클라우드 합작사를 설립해 AI 인프라 자본 사이클을 가속화했으며, NATO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 소식은

07

반도체 · AI 인프라 수요 · 긍정

BofA, 엔비디아 매수 목표가 320달러 유지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일한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98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다음 주 볼 점 좋은 뉴스 뒤에도 가격이 버티는지, 후속 공급망 증폭으로 온기가 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08

소프트웨어 · AI 플랫폼 자본 사이클 · 긍정

구글·블랙스톤 AI 클라우드 합작사 설립

소프트웨어 이슈는 모델 경쟁보다 인프라 지출의 방향을 보여줄 때 시장 파급력이 커진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소프트웨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28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다음 주 볼 점 클라우드 CAPEX, 데이터센터 계약, AI 서비스 매출화 속도가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다.

09

금융 · 할인율의 압박 · 중립

유가 급등에 美 30년물 5% 돌파

금리 뉴스는 성장주의 실적 기대를 직접 훼손하지 않아도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격을 흔든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금융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5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중립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다음 주 볼 점 다음 주에는 장기금리가 안정되는지, 성장주 반등이 금리 하락 없이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Weekly Connection

이날의 3대 뉴스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금융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겉으로는 「BofA, 엔비디아 매수 목표가 320달러 유지 / 구글·블랙스톤 AI 클라우드 합작사 설립 / 유가 급등에 美 30년물 5% 돌파」처럼 서로 다른 뉴스였지만, 주간 관점에서는 모두 실적 기대와 자본 지출, 금리 부담이 어떤 순서로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묻는 재료였다. 기대가 우세했지만, 가격이 이미 앞서 움직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날이었다.

Investor Note

따라서 이 날짜의 뉴스를 읽을 때는 제목의 강도보다 다음 날에도 같은 산업군이 이어서 움직였는지, 관련 종목의 반응이 대형주에만 머물렀는지 아니면 공급망과 주변 업종으로 확산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주간 리포트에서는 이 흐름을 뒤 페이지의 칼럼에서 다시 묶어 투자 판단의 맥락으로 정리했다.

Daily Three

엔비디아 Q1 어닝 서프라이즈, Q2 가이드런스 91B

오늘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Q1 어닝 서프라이즈, Q2 가이드런스 91B」 보도가 반복해서 다뤄지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모았고, 반도체 관련 뉴스가 전체 흐름의 41%를 차지했습니다. 뉴스 분위기는 긍정적인 해석이 우세합니다.

10

반도체 · AI 인프라 수요 · 긍정

엔비디아 Q1 어닝 서프라이즈, Q2 가이드런스 91B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27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음 주 볼 점 좋은 뉴스 뒤에도 가격이 버티는지, 후속 공급망 증폭으로 온기가 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11

소프트웨어 · AI 플랫폼 자본 사이클 · 긍정

오픈AI, 1조달러 IPO 추진설

소프트웨어 이슈는 모델 경쟁보다 인프라 지출의 방향을 보여줄 때 시장 파급력이 커진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소프트웨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33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음 주 볼 점 클라우드 CAPEX, 데이터센터 계약, AI 서비스 매출화 속도가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다.

12

에너지 · 비용과 인플레이션의 변수 · 중립

에너지 위기 심화, 호르무즈 봉쇄

에너지 리스크는 기업 이익률과 물가 기대를 동시에 건드린다. 그래서 단일 업종 뉴스처럼 보여도 시장 전체의 위험 신호를 바꿀 수 있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에너지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0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중립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음 주 볼 점 유가가 다시 튀는지, 운송·항공·소비재처럼 비용 민감 업종이 함께 흔들리는지 봐야 한다.

Weekly Connection

이날의 3대 뉴스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겉으로는 「엔비디아 Q1 어닝 서프라이즈, Q2 가이드런스 91B / 오픈AI, 1조달러 IPO 추진설 / 에너지 위기 심화, 호르무즈 봉쇄」 처럼 서로 다른 뉴스였지만, 주간 관점에서는 모두 실적 기대와 자본 지출, 금리 부담이 어떤 순서로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묻는 재료였다. 기대가 우세했지만, 가격이 이미 앞서 움직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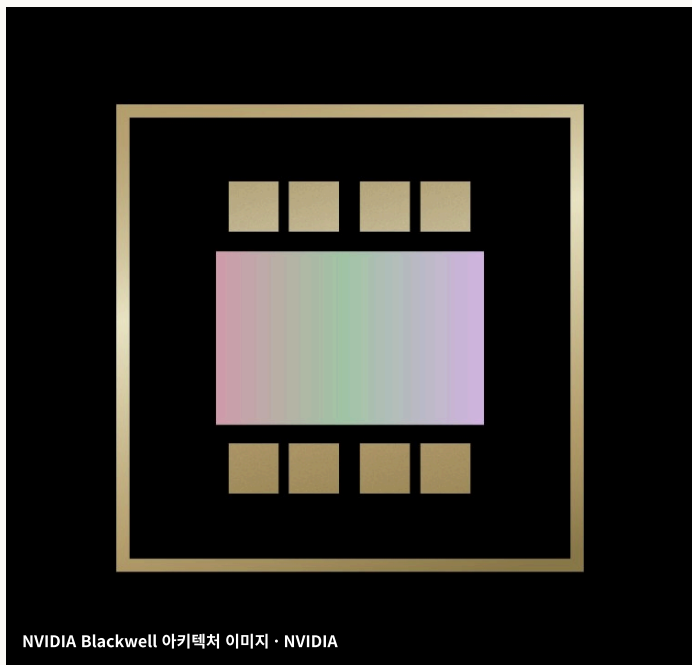
Investor Note

따라서 이 날짜의 뉴스를 읽을 때는 제목의 강도보다 다음 날에도 같은 산업군이 이어져 움직였는지, 관련 종목의 반응이 대형주에만 머물렀는지 아니면 공급망과 주변 업종으로 확산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주간 리포트에서는 이 흐름을 뒤 페이지의 칼럼에서 다시 묶어 투자 판단의 맥락으로 정리했다.

Daily Three

엔비디아 어닝콜, 1조달러 매출 전망

오늘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어닝콜, 1조달러 매출 전망」 보도가 반복해서 다뤄지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모았고, 반도체 관련 뉴스가 전체 흐름의 43%를 차지했습니다. 뉴스 분위기는 긍정적인 해석이 우세합니다.



13 · 반도체

엔비디아 어닝콜, 1조달러 매출 전망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27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14 · 소프트웨어

오픈AI, 이번 주 IPO 신청 임박

소프트웨어 이슈는 모델 경쟁보다 인프라 지출의 방향을 보여줄 때 시장 파급력이 커진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소프트웨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27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15 · 하드웨어

美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2년새 2배

반도체 뉴스는 이제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버, 메모리, 전력, 냉각까지 연결된 투자 사이클로 읽힌다. 이날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이 이슈가 하드웨어 흐름을 설명하는 주요 축으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는 17건으로 집계됐고, 뉴스 해석은 긍정에 가까웠다. 주간 관점에서는 단기 반응보다 이 이슈가 다른 산업과 가격 흐름으로 번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투자자는 이 뉴스를 단순 호재·악재로 나누기보다,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근거가 뒤따르는 국면에서는 확인 지표가 늦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진다.

Weekly Conn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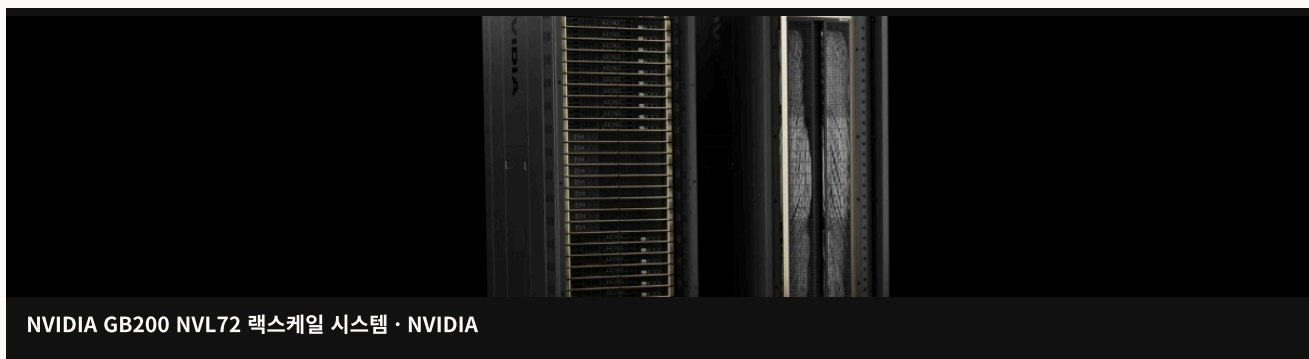
이날의 3대 뉴스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겉으로는 「엔비디아 어닝콜, 1조달러 매출 전망 / 오픈AI, 이번 주 IPO 신청 임박 / 美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2년새 2배」 처럼 서로 다른 뉴스였지만, 주간 관점에서는 모두 실적 기대와 자본 지출, 금리 부담이 어떤 순서로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묻는 재료였다. 기대가 우세했지만, 가격이 이미 앞서 움직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날이었다.

Investor Note

따라서 이 날짜의 뉴스를 읽을 때는 제목의 강도보다 다음 날에도 같은 산업군이 이어져 움직였는지, 관련 종목의 반응이 대형주에만 머물렀는지 아니면 공급망과 주변 업종으로 확산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주간 리포트에서는 이 흐름을 뒤 페이지의 칼럼에서 다시 묶어 투자 판단의 맥락으로 정리했다.

01 엔비디아 Q1 어닝 서프라이즈, Q2 가이드런스 91B

이번 주 시장이 「엔비디아 Q1 어닝 서프라이즈, Q2 가이드런스 91B」에 반응한 이유는 뉴스 자체보다 그 뉴스가 바꾼 기대의 위치에 있다.



NVIDIA GB200 NVL72 랙스케일 시스템 · NVIDIA

이번 주 「엔비디아 Q1 어닝 서프라이즈, Q2 가이드런스 91B」 이슈는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장면이었다. 1개 거래일에 걸쳐 반복됐고, 주간 누적 127건으로 집계됐다. 핵심은 보도량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뉴스가 며칠 동안 가격 기대를 붙잡았다는 점이다.

AI 서버, 메모리 가격,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이 한 흐름으로 묶이는 업종입니다.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드런스는 AI 수요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혔다. 이 이슈는 투자자들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오늘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Q1 어닝 서프라이즈, Q2 가이드런스 91B」 보도가 반복해서 다뤄지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모았고, 반도체 관련 뉴스가 전체 흐름의 41%를 차지했습니다. 뉴스 분위기는 긍... 따라서 다음 주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이 그 기대를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도체 기대는 단발 뉴스가 아니라 주간 흐름으로 이어졌다. 다음 주에는 좋은 뉴스보다 좋은 뉴스에 대한 가격의 체력을 먼저 봐야 한다.

이번 주 확인된 근거

2026-05-21 · 목 엔비디아 Q1 어닝 서프라이즈, Q2 가이드런스 91B — 오늘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Q1 어닝 서프라이즈, Q2 가이드런스 91B」 보도가 반복해서 다뤄지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모았고, 반도체 관련 뉴스가 전체 흐름의 41%를 차지했습니다. 뉴스 분위기는 긍정적인 해석이 우세합니다.

엔비디아 Q1 어닝 서프라이즈, Q2 가이드스 91B

가격은 이미 얼마나 반영했나

투자 영향은 먼저 반도체 안에서 갈린다. 데이터센터 투자, HBM, 서버 부품, 전력 인프라까지 기대가 확산될 수 있는 재료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는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만, 기대가 과하게 선반영된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실현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뉴스 해석은 긍정적 기대가 우세한 흐름이다. 이때 투자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 반응을 봐야 한다. 같은 호재에도 주가가 밀리면 기대가 이미 높았다는 신호이고, 악재에도 버티면 수급과 실적 신뢰가 남아 있다는 신호다. 다만 이미 높은 기대가 주가에 반영돼 있어, 숫자가 좋아도 마진과 공급 제약이 함께 확인돼야 한다.

이번 이슈를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볼 때는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이후 공급망 종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가이드스 상황이 다른 기업으로 번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도 테마가 쉬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여러 지표가 동시에 확인되면 주간 흐름은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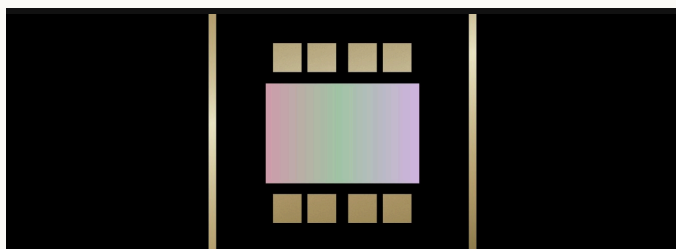
가격 확인

- 호재 직후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면 기대가 아직 살아 있다는 뜻이다.
- 반대로 좋은 뉴스에도 거래량이 줄면 선반영 부담을 의심해야 한다.
-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이후 공급망 종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가이드스 상황이 다른 기업으로 번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02 엔비디아 어닝콜, 1조달러 매출 전망

「엔비디아 어닝콜, 1조달러 매출 전망」은 이번 주 반도체 밸류에이션 논쟁을 다시 열었다.

이번 주 「엔비디아 어닝콜, 1조달러 매출 전망」 이슈는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장면이었다. 1개 거래일에 걸쳐 반복됐고, 주간 누적 127건으로 집계됐다. 핵심은 보도량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뉴스가 며칠 동안 가격 기대를 붙잡았다는 점이다.



NVIDIA Blackwell 아키텍처 이미지 · NVIDIA

AI 서버, 메모리 가격,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이 한 흐름으로 묶이는 업종입니다. 어닝콜에서 제시된 장기 매출 전망은 AI

인프라 사이클의 지속 기간을 다시 늘려 잡게 만든 이슈다. 이 이슈는 투자자들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오늘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어닝콜, 1조달러 매출 전망」 보도가 반복해서 다뤄지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모았고, 반도체 관련 뉴스가 전체 흐름의 43%를 차지했습니다. 뉴스 분위기는 긍정적인 해석이 우... 따라서 다음 주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이 그 기대를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도체 기대는 단발 뉴스가 아니라 주간 흐름으로 이어졌다. 다음 주에는 좋은 뉴스보다 좋은 뉴스에 대한 가격의 체력을 먼저 봐야 한다.

이번 주 확인된 근거

2026-05-22 · 금 엔비디아 어닝콜, 1조달러 매출 전망 — 오늘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어닝콜, 1조달러 매출 전망」 보도가 반복해서 다뤄지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모았고, 반도체 관련 뉴스가 전체 흐름의 43%를 차지했습니다. 뉴스 분위기는 긍정적인 해석이 우세합니다.

엔비디아 어닝콜, 1조달러 매출 전망

다음 주 가능한 세 가지 경로

투자 영향은 먼저 반도체 안에서 갈린다. 단기 실적보다 총시장 규모와 투자 사이클이 부각되면서 성장주 멀티플을 지지하는 논리로 작동할 수 있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는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만, 기대가 과하게 선반영된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실현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뉴스 해석은 긍정적 기대가 우세한 흐름이다. 이때 투자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 반응을 봐야 한다. 같은 호재에도 주가가 밀리면 기대가 이미 높았다는 신호이고, 악재에도 버티면 수급과 실적 신뢰가 남아 있다는 신호다. 장기 전망은 매력적이지만, 너무 먼 미래의 숫자는 금리 상승기에는 할인율 부담을 크게 받는다.

이번 이슈를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볼 때는 시장에서는 장기 전망보다 다음 분기 주문, 공급 능력, 마진 방어가 실제로 따라오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도 테마가 쉬어 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여러 지표가 동시에 확인되면 주간 흐름은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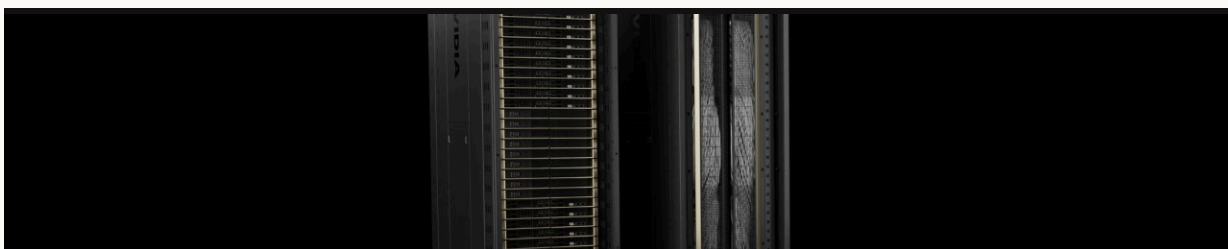
시나리오

- 강세 시나리오:** 후속 가이던스와 공급망 뉴스가 같은 방향으로 이어진다.
- 중립 시나리오:** 뉴스는 좋지만 주가는 박스권에서 소화 과정을 거친다.
- 약세 시나리오:** 금리나 마진 부담이 커지며 밸류에이션이 먼저 눌린다.

03 BofA, 엔비디아 매수 목표가 320달러 유지

「BofA, 엔비디아 매수 목표가 320달러 유지」는 이번 주 반도체 밸류에이션 논쟁을 다시 열었다.

이번 주 「BofA, 엔비디아 매수 목표가 320달러 유지」 이슈는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장면이었다. 1개 거래일에 걸쳐 반복됐고, 주간 누적 98건으로 집계됐다. 핵심은 보도량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뉴스가 며칠 동안 가격 기대를 불잡았다는 점이다.



NVIDIA GB200 NVL72 랙스케일 시스템 · NVIDIA

AI 서버, 메모리 가격,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이 한 흐름으로 묶이는 업종입니다. 대형 증권사의 목표가 유지와 매수 의견은 엔비디아 강세 논리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후행 확인이다. 이 이슈는 투자자들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하고 유가가 급등하는 이중 압박 속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엔비디아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가 320달러를 유지하며 PEG 0.4배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강조했다. 구글과 블랙스톤은 50억... 따라서 다음 주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이 그 기대를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도체 기대는 단발 뉴스가 아니라 주간 흐름으로 이어졌다. 다음 주에는 좋은 뉴스보다 좋은 뉴스에 대한 가격의 체력을 먼저 봐야 한다.

이번 주 확인된 근거

2026-05-20 · 수 BofA, 엔비디아 매수 목표가 320달러 유지 —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하고 유가가 급등하는 이중 압박 속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엔비디아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가 320달러를 유지하며 PEG 0.4배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강조했다. 구글과 블랙스톤은 50억 달러 규모의 TPU 기반 AI 클라우드 합작...

읽는 방식

대형 증권사의 목표가 유지와 매수 의견은 엔비디아 강세 논리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후행 확인이다. 그래서 이 이슈는 단순 호재가 아니라 다음 주 가격 반응을 확인해야 하는 관찰 대상이다.

BofA, 엔비디아 매수 목표가 320달러 유지

목표가는 왜 움직였나

투자 영향은 먼저 반도체 안에서 갈린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중 축소보다 보유 명분을 강화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는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만, 기대가 과하게 선반영된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실현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뉴스 해석은 긍정적 기대가 우세한 흐름이다. 이때 투자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 반응을 봐야 한다. 같은 호재에도 주가가 밀리면 기대가 이미 높았다는 신호이고, 악재에도 버티면 수급과 실적 신뢰가 남아 있다는 신호다. 목표가 뉴스는 가격을 새로 만드는 재료라기보다 이미 형성된 기대를 정당화하는 성격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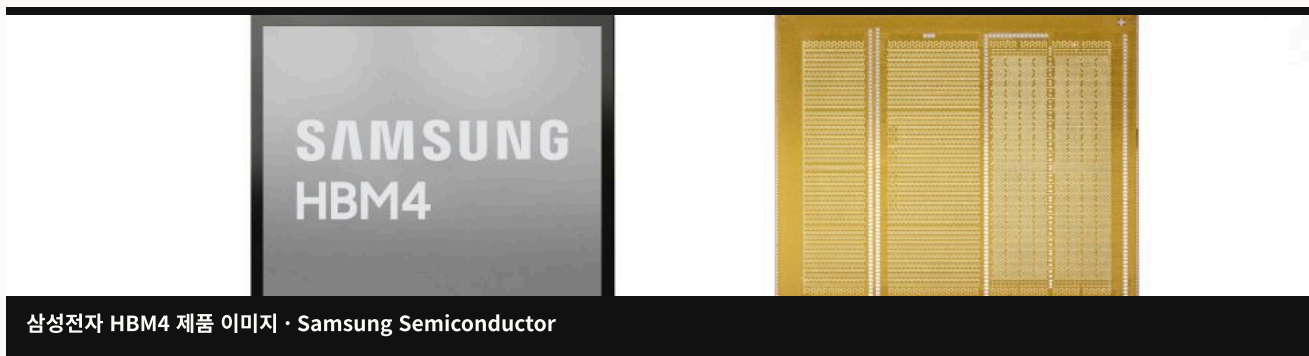
이번 이슈를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볼 때는 목표가 상향이 실제 이익 추정치 상향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단순 밸류에이션 재조정인지 구분해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도 테마가 쉬어 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여러 지표가 동시에 확인되면 주간 흐름은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다.

밸류에이션 점검

- 1 목표가 변화가 매출 추정 상향에서 출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2 단순 멀티플 재조정이면 지속성은 가격 반응에 달려 있다.
- 3 목표가 뉴스는 가격을 새로 만드는 재료라기보다 이미 형성된 기대를 정당화하는 성격이 강하다.

04 JPM, 삼성전자 목표가 48만원 대폭 상향

「JPM, 삼성전자 목표가 48만원 대폭 상향」는 이번 주 반도체 밸류에이션 논쟁을 다시 열었다.



이번 주 「JPM, 삼성전자 목표가 48만원 대폭 상향」 이슈는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장면이었다. 1개 거래일에 걸쳐 반복됐고, 주간 누적 93건으로 집계됐다. 핵심은 보도량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뉴스가 며칠 동안 가격 기대를 붙잡았다는 점이다.

AI 서버, 메모리 가격,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이 한 흐름으로 묶이는 업종입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은 메모리 업황을 경기순환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재평가로 보려는 시각을 보여준다. 이 이슈는 투자자들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JP모건이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48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며 LTA 기반 구조적 성장 전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공격 취소 결정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 따라서 다음 주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이 그 기대를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도체 기대는 단발 뉴스가 아니라 주간 흐름으로 이어졌다. 다음 주에는 좋은 뉴스보다 좋은 뉴스에 대한 가격의 체력을 먼저 봐야 한다.

이번 주 확인된 근거

2026-05-19 · 화 JPM, 삼성전자 목표가 48만원 대폭 상향 — JP모건이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48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며 LTA 기반 구조적 성장 전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공격 취소 결정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2분기 글로벌 서버 출하량이 사상...

JPM, 삼성전자 목표가 48만원 대폭 상향

실행력이 확인되어야 하는 지점

투자 영향은 먼저 반도체 안에서 갈린다. HBM과 장기공급계약 기대가 커지면 한국 메모리 대형주의 할인 요인이 줄어들 수 있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는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만, 기대가 과하게 선반영된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실현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뉴스 해석은 긍정적 기대가 우세한 흐름이다. 이때 투자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 반응을 봐야 한다. 같은 호재에도 주가가 밀리면 기대가 이미 높았다는 신호이고, 악재에도 버티면 수급과 실적 신뢰가 남아 있다는 신호다. 하지만 목표가가 크게 움직인 만큼 실제 수출, 고객사 승인, 가격 협상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대가 빠르게 식을 수 있다.

이번 이슈를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볼 때는 다음 주에는 HBM 공급 관련 코멘트, 메모리 가격, 외국인 수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도 테마가 쉬어 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여러 지표가 동시에 확인되면 주간 흐름은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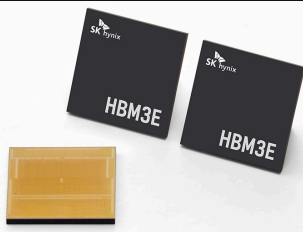
실행 확인

- 실제 공급, 고객 승인, 양산 일정이 뉴스의 신뢰도를 결정한다.
- 수출과 마진 코멘트가 함께 좋아져야 주간 흐름이 이어진다.
- 다음 주에는 HBM 공급 관련 코멘트, 메모리 가격, 외국인 수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

05 JP모건, SK하이닉스 목표가 300만원 상향

이번 주 시장이 「JP모건, SK하이닉스 목표가 300만원 상향」에 반응한 이유는 뉴스 자체보다 그 뉴스가 바꾼 기대의 위치에 있다.

이번 주 「JP모건, SK하이닉스 목표가 300만원 상향」 이슈는 반도체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장면이었다. 1개 거래일에 걸쳐 반복됐고, 주간 누적 44건으로 집계됐다. 핵심은 보도량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뉴스가 며칠 동안 가격 기대를 붙잡았다는 점이다.



SK하이닉스 HBM3E 제품 이미지 · SK hynix

AI 서버, 메모리 가격,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이 한 흐름으로 묶이는 업종입니다. SK하이닉스 목표가 상향은 HBM 중심의

메모리 프리미엄이 계속 인정받고 있다는 신호다. 이 이슈는 투자자들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

미 30년물 국채금리가 5.1%를 돌파하는 베어 스티프닝이 진행되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뉴욕증시가 일제 하락했다. 한편 JP모건은 SK하이닉스 목표가를 300만원으로 상향하며 LTA 체결에 기반한 메모리 섹터 구조적 재평가... 따라서 다음 주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이 그 기대를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도체 기대는 단발 뉴스가 아니라 주간 흐름으로 이어졌다. 다음 주에는 좋은 뉴스보다 좋은 뉴스에 대한 가격의 체력을 먼저 봐야 한다.

이번 주 확인된 근거

2026-05-18 · 월 JP모건, SK하이닉스 목표가 300만원 상향 — 미 30년물 국채금리가 5.1%를 돌파하는 베어 스티프닝이 진행되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뉴욕증시가 일제 하락했다. 한편 JP모건은 SK하이닉스 목표가를 300만원으로 상향하며 LTA 체결에 기반한 메모리 섹터 구조적 재평가 가능성을 제시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보잉...

JP모건, SK하이닉스 목표가 300만원 상향

공급망은 어디까지 따라오나

투자 영향은 먼저 반도체 안에서 갈린다. 엔비디아 공급망과 AI 서버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 SK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가 추가로 상향될 여지가 있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는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만, 기대가 과하게 선반영된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실현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뉴스 해석은 긍정적 기대가 우세한 흐름이다. 이때 투자자는 뉴스 제목보다 가격 반응을 봐야 한다. 같은 호재에도 주가가 밀리면 기대가 이미 높았다는 신호이고, 악재에도 버티면 수급과 실적 신뢰가 남아 있다는 신호다. 반대로 고객사 집중도, 경쟁사 추격, CAPEX 부담이 커지면 프리미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이슈를 다음 주까지 이어서 볼 때는 HBM 가격, 장기공급계약 언급, 경쟁사의 공급 확대 속도가 핵심 확인 지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도 테마가 쉬어 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여러 지표가 동시에 확인되면 주간 흐름은 한 번 더 연장될 수 있다.

공급망 확인

- AI 서버 투자 확대가 HBM과 패키징 병목을 더 자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대형주뿐 아니라 후발 공급망까지 온기가 퍼지는지가 중요하다.
- 반대로 고객사 집중도, 경쟁사 추격, CAPEX 부담이 커지면 프리미엄이 흔들릴 수 있다.

Closing Essay

이번 주 시장은 반도체와 AI 인프라 이슈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평일 데일리 리포트 5개를 바탕으로 보면, 가장 크게 반복된 흐름은 「엔비디아 Q1 어닝 서프라이즈, Q2 가이드스 91B」입니다. 주간 리포트는 세부 기사 전체를 다시 나열하지 않고, 날짜별 메인 이슈와 반복된 핫토픽, 다음 주에 이어서 볼 신호만 압축합니다.

가장 반복된 주제 · 엔비디아 Q1 어닝 서프라이즈, Q2 가이드스 91B 여러 날짜의 데일리 리포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이슈입니다. 단기 뉴스보다 주간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산업 · 반도체 기사 수가 많다는 의미보다, 한 주 동안 투자자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문 영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 체크 · 실적, 가이드스, 금리·유가 변수 이번 주에 형성된 기대가 다음 주 가격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부담 요인이 다시 커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